

hdhstudy.com/1969/23-188-%eb%b3%b5%ea%b7%80%ec%84%ad%eb%a6%ac%ec%97%90-%ec%9e%88%ec%96%b4-%ec%

 $\frac{1}{2}$

두번째의 복귀섭리 흔적은 아브라함 가정에 있다. 이삭에게 쌍태를 주어 가인 입장인 에서와 아벨 입장인 야곱을 주시고 장자를 복귀하게 하는 섭리를 하신 것이다. 야곱이 21년간의 하란 광야생활을 마치고 압복강가에서 영적 사탄 상징인 천사를 굴복시키고 고향으로 돌아와 육적 사탄 상징인 에서를 굴복시킴으로써,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장자를 복귀하여 승리한 입장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이다.

그렇게 승리한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하나님은 다시 쌍태를 주시어 복중에서부터 장자를 복귀하고자 하셨으니, 그것이 곧 베레스와 세라를 통한 복귀섭리이다. 장자의 입장에 있는 세라를 밀치고 차자인 베레스가 먼저 태어남으로써, 혈통적으로 선한 입장에 있는 베레스가 악한 입장에 있는 세라를 굴복시켜 장자 입장을 복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승리한 선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않은 것은 탕감기간 때문이며, 당시 사탄세계가 국가형을 이루고 있었기에 국가적 기준에서 복귀시키고자 그후 2천년이 지나서 탄생시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선의 혈통이었던 것이다.

제2차 7년노정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5일 동안에 만물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6일에 인간을 지으신 후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창조된 만물과 인간이 완성되었더라면, 제일 먼저 만물의 날, 그리고 자녀의 날, 그 자녀인 아담 해와가 완성하여 인류의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부모의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이 세웠졌을 것이다.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그 모든 날들을 세우지 못하고 말았으니, 그런 날들을 찾기 위한 것이 복귀섭리인 것이다.

우리 통일교회는 1960년부터 1967년까지 제1차 7년노정을 정하고 잃어버린 날들을 복귀하였다. 1960년에 부모의 날과 자녀의 날을 찾아 세우고, 1963년에 만물의 날을 찾아 세운 것이다. 이 7년노정이 끝나고 1968년 1월 1일에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의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가 제1차 7년노정이요, 부모의 노정이었다.

그리고 1968년부터 제2차 7년노정이 시작되었으니, 그때로부터 곧 자녀의 노정이 시작된 것이다. 자녀는 부모가 걸었던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걸어야 한다. 잃어버린 믿음의 자녀를 복귀하여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만물의 축복까지 받아서 사명을 인계하고 안식의 해를 맞이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이 7년 동안에 못하면 21년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2차 7년노정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날은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실체로서 나타나시는 날이니,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하나님의 실체를 입으신 부모님께 굴복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날을 세움으로써 천사가 아담에게 굴복하고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했다는 조건이 세워졌다.

제2차 7년노정은 복귀된 장자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기간이다. 과거에는 차자의 입장에서 장자의 입장을 빼앗아야 했기에 핍박을 받았으나, 이제는 장자의 입장에서 복을 나눠 주는 입장이 되었으니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럴 때가 되었다. 이제는 불응하면 때려서라도 하늘의 자녀로 복귀해야 할 사명이 장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1차 7년노정에서 부모님이 메시아의 사명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제2차 7년노정에서는 여러분이 종족 복귀를 위한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